민족동질성 회복의 터전

독자투고 연변조선족의 역사와 그 역할

동아시아연구회(지도교수 조장원)에서는 지역연구를 위하여 지난 7월18일 부터 28일까지 북경,심양,연길 등 중국동북 3성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연구회에서는 한학기 동안 특정지역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한 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역답사인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이 5회째이다. 본고에서는 한중수교(지난8월24일)를 계기로하여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린 동북 3성중 길림성에 대하여 자연지리적 형태와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주 역사를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민족간의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조선족 동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통일을 향한 하나의 작은 시도가 되었으면 한다.

Ⅰ. 길림성의 자연지리와 역사

중국은 23개성과 5개 자치구, 3개 직할시, 30개 자치주를 포함한 3백36개 지급과 1백16개 자치현을 포함한 2천1백82개 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1989년). 길림성은 중국동북지방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쪽으로 조선, 소련과 접해 있고 북, 서, 남쪽으로는 흑룡강성, 내몽고, 요녕성과 접하고 있다. 서쪽에는 속신의 평야있고 한대는 고구려, 달래는 발해국의 도성이 위치하였다. 장대에 길림성이 설치되는데 송화강가를 길림이라고 칭하였다. 만주어로는 연강이란 뜻이다. 고성터와 역사유적지가 집안, 돈화, 훈춘, 임강, 화룡 등지에 산재해 있는데 집안은 고구려의 국내성이 자리잡고 있던 곳으로 광개토왕비, 환도성터, 장군총, 무용총, 각저총 등이 있는 문화 유적지다.

길림성의 면적은 18만㎢이고 인구는 2천3백57만명으로 한족, 조선족, 만주족, 회족, 몽고족, 석백족 등 55개 소수 민족 중 27개의 소수민족이 생활하고 있다. 1개 자치주와 6개 지급시, 14개 현급시, 24개 현, 3개 자치현으로 도읍은 장춘이다.

1) 지형:지세는 동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서서히 낮아져 산지, 구릉, 평원을 이루고 있다. 평원이 전성면적의 30~40%를 차지하고 산지와 구릉은 60%를 차지한다. 먼저 장백산(백두산) 지구는 대체로 현무암, 용암으로 퍼덮여 있으며 주요하류의 발원지이다. 이 지역은 원시림과 삼림이 울창하여 장백산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있다. 연길, 돈화, 훈춘 등지는 분지와 산간 분지이다. 장백산 이서지구 즉 사평, 장춘, 유수를 잇는 동쪽지역은 구릉지대로 해발 5백미터이하이다. 이곳은 송화강 및 이들 지류의 장기간 침식을 받아 대부분 산간 분지와 하곡평원을 이루는 주요 농업지구이다. 이곳 중부는 송요평원으로 알루의 고향이라고도 하며 도시 녹화로 유명한 장춘이 자리하고 있다. 서북평원은 장춘에서 공주령, 장령에서 개통을 잇는 서쪽지역의 해발 2백미터 내외로 송요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데 북쪽은 송요평원, 남쪽은 요하평원이다. 이 지역은 광활한 목농업지대이나 송화강의 종사영향이 많은 곳이다.

2) 기후:길림성은 온대, 습윤기후로 겨울은 길고 한냉하며 여름은 짧고 온난하다. 봄가을은 바람이 많고 날씨 변화가 심하다. 연평균 기온은 -3~7도이고, 1월은 -20~-14도, 7월은 16~24도이다. 백두산 천지는 연평균 -7.4도, 1월은 -23.8도, 7월은 8.5도다. 연평균 강수량은 3백50~1천㎜이다.

3) 하류와 호수:송화강, 압록강, 도문강(두만강), 요하, 위본하 등이 주요하류인데 대체적으로 백두산에서 발원한다. 송화강유역은 전성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압록강, 두만강은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이루는 수량이 풍부한 하류이다. 송화호(종만령)와 서북평원에 수많은 호수가 있고 백두산 천지가 있다.

4) 농업:사림(자원)의 종류와 토지의 비옥, 그리고 초원의 광활함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조건이 매우 좋은 지역이다. 명대 이후 개간을 시작했지만 청대에는 개간을 금지하였다. 19세기 초 대금령이 폐쇄되기전까지 농업 발전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산림의 남벌, 황무지의 무계획적 개간으로 파괴되다가 해방 후 토지와 자원을 보호하기 시작하여 전국중요농업생산구의 하나로 되었다. 경지면적은 7천만묘로 내부분이 황무지를 개간한 땅이다. 양식 작물이 경지 총면적의 70%를 차지하며 벼, 옥수수, 고량, 곡자 등이 재배된다. 기타 작물로는 콩, 감자, 담배 등과 삼림자원으로 홍송, 낙엽송, 어린송 등이 있다. 관동삼보(關東三寶)인 인삼, 녹용, 소피와 함께 약재, 기타 야생동물 등이 있고 어업은 담수어업이 중심이다. 주요 쌀생산지인 연변 조선족 자치구는 우리 민족의 활무지 개간과 이민의 역사가 담겨 있는 벼농사 중심지구이다.

5) 공업: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무연탄, 철, 동, 금, 아연 등의 생산과 자동차, 화공, 전력, 삼림공업 등이 주된 공업 생산품이다. 장춘의 제1자동차제조창, 장백산림구의 목재가공, 기타 화학, 농약, 농기구제조, 야금, 제당, 양조, 방직, 전자 등의 공업과 1백여개의 중소형 공장이 있다.

6) 교통:철도교통이 발달하여 북경과 하르빈을 잇는 철도를 주축으로 하여 심림, 사평, 매집, 장원, 장백, 평제 등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 화물의 2/3를 수송하고 있다. 도로는 장춘, 길림, 연길, 통화 등지가 중심이 되며 단거리 운송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운은 송화강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항공은 장춘을 중심으로 하여 북경, 하르빈, 심양등지와 연결 된다. 주요도시로는 장춘, 길림, 사평, 요원, 통화, 연길, 백성, 훈강, 도문 등이 중심시이다.

Ⅱ. 조선족의 이주역사와 연변

현재 해외 동포는 5백만명에 이르는데 일본에 67만명, 미국에 1백만명, 소련에 50만명, 중국에 2백만명의 동포들이 있다. 조선인이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인데 이주한 시기를 대체적으로 세시기로 나눈다. 첫째 시기는 수십여호씩 떼지어 정착 이민을 하기 시작한 고종초인 1860년대이다. 이들은 조선 관리들의 수탈, 잦은 자연재해, 천주교에 대한 박해, 러시아가 연변지역에 조선의 농업 이민을 정책적으로 조장한 것 등이 이주의 주원인이다. 1870년인 임술년 원인에 조선조 마을이 28군데나 되었다. 청조가 봉금령(1677년)을 내려 만주지방에 조선인의 이주를 금지 시켰으나 봉금령이 철폐(1881년)되자 더욱 이주자가 많아졌다. 두번째 이주시기는 1910년 이후로 일제의 강제 수탈을 피한 농민의 이주가 만주 전지역으로 퍼진 시기이다. 1920년대에 유행하던 '신아리랑'의 가사가 그당시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 밭일고 집 앞은 동무들아, 어디로 가야 만 통을까보냐. 피나리 붓김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오소. 북간도 밤린이 좋다더라. 쓰라린 가슴을 움켜 쥐고, 배두산 고개를 넘어 간다. 감발을 하고서 배두산 넘어 북간도 밤관을 찾아간다. 왔수로다, 왔수로다 충가진 왔수로다" 당시 식민통치를 위한 일제의 압박으로 조선인의 국내 토지 몰수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의병과 독립군의 이주, 지리적으로 국경의 접속, 간도가 천혜적으로 지리이 양호하고 지가의 저렴, 기근으로 인한 생활고의 호피, 만주 침략을 노골화한 러·일조약(1907년)과 간도협약(1909년)으로 조선인의 월경을 보장하고 귀화자에게 토지소유와 권리를 인정하던 중국측의 태도, 조선관헌의 가렴주구, 수렵과 약초채집, 반군반농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정치인의 망명, 배일사상의 종교가들의 망명들이 주원인이었다. 세번째 이주시기는 일본이 만주침략을 위해 만주사변(1931년)을 일으켜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주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1881년에 1인명이었으나 1910년엔 10인명, 1920년대엔 20인명, 1931년엔 29인명으로 증가하였고 1950년에는 1백만을 정점이 주가 진행되어 1945년 이전에 1백60만명이 거주하였으나 해방 후 1백만명도가 잔류하였다.

현재 연변자치구는 4만2천㎢의 면적으로 2백만 조선족중 39.5%인 82만명이 살고 있다. 동북3성의 길림성에 1백10만명(61.8%), 흑룡강성에 43만명(24.5%), 요녕성에 20만명(11.2%), 내몽고 자치구에 1만7천명(1%)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길림성은 대체적으로 함경도 사람, 요녕성에는 평안도 사람, 흑룡강성에는 경상도·전라도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조선족은 벼농사에 성공하면서 만주개척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1949년 이후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이 자치주지역은 우리민족이 개척한 땅이요, 피로써 지킨땅이며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땅인 것이다.

연변 조선족자치구의 수도인 연길시는 본지지형으로 훈춘을 경계로 소련과 맞닿아 있고 두만강 7백리를 경계로 중조국경이 있다. 현재 훈춘의 항구개발에는 8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6대 경제특구와 14개 지방도시가 해안가에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길림성에는 하나도 없고 요녕성의 대련만이 유일하다. 조선족자치주는 주은래의 지대한 관심이래로 강력한 서기와 이봉춘이 역시 중국에서 가장 모범주로 만들자고 하였다. 기계, 목재가공, 화공, 도자, 제약, 양조 등의 공업이 발달하고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문화,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상해방투쟁, 공산당 일도문제, 사회주의 신념, 애국주의 문제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치지역은 광물자원이 대단히 풍부하다. 훈춘의 석탄을 비롯하여 81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석유개발에 힘쓰고 있다.

장백산지구는 야생식물의 천혜자원 구역으로 1천4백60여종의 식물과 8백60여종의 약재가 분포하고 있고 경제동물이 2백50여종이 있다. 용정부근의 모화산은 과수원 지역으로 사과와 배가 재배되고 있다. 예술분야는 연변 가무단, 연변예술학교 등이 있는데 중국 7대 명작의 하나로 춘향가가 선정되어 있다. 경제는 상품에 대한 인식이 미비달하였지만 사회경제의 발달에 따라 교육의 질도 변화되고 경영의 다각화와 동소광의 개발·개방정책과 훈춘 개발 이후 더욱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연변에도 자본주의적인 부작용으로 파소비가 발어지고 있는데 파마집이 3백80여군데, 택시는 광주성 광주다음으로 많은 도시가 되었고 하게 되었고 한중수교와 함께 올해는 40주년을 맞게되어 더욱 뜻깊은 것이다. 이들은 조선어, 글자, 교육을 왕하고 있는데 민족혼 고양과 함께 교화과 부모의 희생적인 높은 교육열(44.1%)을 보이고 있고 또한 중인부대도 가지고 있다.

◇ 한중수교를 계기로 연변 조선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조사와 과감한 연구투자가 있어야 한다.

◇ 연변자치구는 4만2천㎢의 면적에 82만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

민족혼 고양위한 조선어교육에 높은 열기
남북한 이질화 극복위한 매개역할 기대돼

기라오거나 무도장 심지어 노상 비디오케도 등장하였다. 조선족의 연령 구조는 노령화로 소수민족은 산아제한이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자의 이혼요구로 이혼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Ⅲ.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해

한중수교를 계기로 하여 남북간의 사회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접심없이 기울여야 한다. 남북간의 고정화되고 고식적인 통일논의를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직접 사회문화적인 접촉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바로 연변 조선족을 매개로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보다도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연변 조선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롭게 민족의 이질화를 극복하여 통일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연변 조선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조사와 과감한 연구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구화된 통일 논리를 타파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 민족의 동질성 문제도 보다 심도있게 접근되어야 하고 소홀했던 사회주의 체제와의 해외동포와의 관계 역시 적극적으로 가져 민족의 차원에서 공동의 관심과 연구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역사적으로 다시 시작된 한중수교를 계기로 하구화된 통일 논리를 타파하고 실질을 위한 통일 준비단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앞으로 동북아 경제권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시대에의 도약을 위한 꾸준한 준비와 연구만이 통일을 위한 길일 것이다. 조국과 모국이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연변의 사회와 문화를 조사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 지역의 조사는 매우 의미가 있다. 43년 단절의 벽을 뛰어 넘은 한중수교를 계기로 하여 북한, 미국, 일본의 변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 질서의 개편이 남북한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다.

오 일 환
(대학원박사과정·사학)

의경의 이유있는 '인력난(?)'

의총준비를 서두르며 바지 고리끈을 매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궁여지책으로 노끈을 묶어 그 순간을 넘겼다는 웃픈조들의 일화가 있다.

이것은 허리띠를 둘러야 제격인데 급한 대로 바지를 흘러 내리지 않게 하는 기능만 갖춘 모양새 없는 노끈으로 위기상황을 대처했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무경찰(이하 의경)모집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 기피하는 추세를 보이자 의경모집횟수를 연간 3회에서 연중 모집으로 전환, 충원을 위한 비상수단을 강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60%선을 맴돌자 궁여지책으로 전투경찰(이하 전경)차림 훈련소 신병가운데서 차출하는 '경찰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같이 의경지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의경의 본래 임무인 치안보조업무 외에 시위진압업무까지 병행해야 하고 법질도 의경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도가 낮기 때문이다.

해가 가도 바뀌지 않는 시위진압식도 의경 지원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5월 故 강경대 치사사건 이후 양심선언을 했던 라윤성의경이 지적했던 공격적 시위진압양식이 점서 수그러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범민족대회기간 중 축도 속에 철근을 숨겨 진압을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묘하게 공격적이며 감정한 시위진압양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전경과 의경의 충원방식을 일원화하는 안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지원을 원하지 않던 차출자들이 시위진압 등에 투입될 경우 지금보다 더 파업압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반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두배로 증가한 전경에 의해 집회나 시위에서의 대립은 더욱 더 심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이고 자세이다. 그것이 바뀔 때 전경이나 의경은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즉 의경은 치안보조 업무로, 전경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기만 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원 감소 추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먼저 악화돼 대로 악화된 사회인식을 되찾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임시로 묶은 노끈이 과연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위원의 소지까지 있는 이번 조치는 좀더 다각적이고 신중한 고심이 필요하다.

— 공부하는 직장인 —

아빠는 몇 학년…?

"아빠는 몇 학년이야?"
국민학교 1학년 짜리 우리 집 꼬맹이가
가끔 묻는 말입니다.
퇴근 후 책상머리에 붙어앉아 있는
아빠의 모습이 그 아이에겐 꽤나 궁금한 모양입니다.

공부하는 아빠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다 —
그것도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나날이 변모해가는 사회·경제환경에
미리 대처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공부하는 제 자신은 하루가 새롭고
매사에 의욕이 샘솟습니다.

21세기의 문턱 —
눈 앞에 열리는 새로운 시대 —
지금, 새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때 아닙니까?

저희 동부가족은 창업초기부터 '공부하는 자세로 일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조국선진화에 기여함을 기쁨으로 일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시대에도 저희 모두는 공부하는 자세로 저마다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므로써 우리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동부그룹

■기간산업부문 : ■동부산업 ■동부제강 ■동부화학 ■동부건설 ■동부고속 ■동부엔지니어링 ■금융·보험부문 : ■한국자동차보험 ■동부애트나생명보험 ■동부증권 ■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창업투자